

우체국에 갔어요

글 | 양희진

그림 | 강아람

글 | 양희진

그림 | 강아람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엄마와 서빈이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베트남에 계신
외할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보낼 거예요.



우체국 앞에는 빨간 우체통이 있고요, 태극기와 우체국 깃발이 바람에 휘날려요. 서빈이는 예쁜 우체통에 자기가 쓴 편지를 넣어 보고 싶습니다.



엄마와 서빈이는 선물을 넣을
상자를 사려고 해요. 소포 상자
측정함에 선물을 놓아 보니,
3호 상자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선물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였어요. 엄마는 국제 소포 용지에 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엄마가 주소를 쓸 동안 서빈이는 얼른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인 수가 5명이래요. 조금 기다려야만 해요.



서빈이가 무인 우편 접수기를 발견했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아, 안내문을 읽어 보니 국제 소포는 보낼 수 없답니다.



딩동, 서빈이네 차례예요. 창구에 놓인 저울에 소포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담당 직원이 소포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무게를 확인해요.



담당 직원이 항공편과 선편 중 어느 것으로 보낼 거냐고 물어요. 항공편은 비행기에 실어 보내는 거고, 선편은 배에 실어 보내는 거래요. 서빈이와 엄마는 물건이 빨리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영수증을 받고 우체국 문을 나섰어요. 서빈이는
외할아버지가 소포를 받고 기뻐하실 모습이 떠올라
뿌듯했어요.

“우체국에 갔어요”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